

# 韓寒 장편소설 《1988：我想和這個世界談談》 小考\*

金鍾碩\*\*

## <목 차>

1. 들어가며
2. 작가의식의 성숙: 《1988》의 창작 배경
3. 《1988》에 드러난 '길'의 서사와 작가의식
  - 3.1 자이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길'의 함의
  - 3.2 '현실의 여정': 부조리한 사회 현실 비판
  - 3.3 '성장의 정신 역정'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
4. 나가며

## 1. 들어가며

21세기 초반 들어 중국의 문화 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가속화된 시장경제 체제의 강화와 결합된 상업화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니며 발전한다. 이에 따른 베스트셀러 메커니즘의 운용,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블로그와 인터넷 기반 글쓰기를 통한 '포스트 80세대(“八〇後”)' 작가군의 작품 창작과 문단 진입, 독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청년 세대의 구매력과 동 세대 작가들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팬덤 형성 등의 외부 환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다.<sup>1)</sup> 이에 따

\*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고려대학교 CORE 사업단 연구교수.

1) 이러한 의미에서, “바링허우 문학은 중국에서 출판 부문이 이데올로기에서 산업으로 재편성되고 문학이 출판 산업과 맺는 관계 속에서 출현한 사건”이며, “문화산업으로서 문학과 출판이 재편되는 과정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박자영, <메이드 인 '바링허우'>《중국현대문학》 53號,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6), 272쪽.)

라, ‘청춘 문학’을 기치로 등장한 ‘포스트 80세대(“八〇後”) 작가군은 더 이상 주류 문단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단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다.

韓寒(1982~)은 이러한 변화된 문단 환경을 반영하는 ‘포스트 80세대(“八〇後”) 작가 중에서도 대표 격으로 손꼽힌다. 그는 약관이 채 되지 않은 2000년 장편소설 《三重門》을 발표하고 중국 당대의 교육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는 ‘한한 현상(韓寒現象)’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일약 문단의 신데렐라로 자리 잡는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쟁에서, 주류 문단의 폐쇄성과 특권 의식에 대한 거침없는 입장을 표현하였고, 자신 세대의 달라진 문학관과 세계관을 거침없이 주장하며 ‘청년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렇듯 달라진 문화 산업의 메커니즘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인기 블로거로, 카레이서, 영화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2010년 4월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24위에 선정<sup>2)</sup>되는 등 중국에서 작가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2010년 9월에 출판된 《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이하 《1988》로 기술)은 韓寒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로, 작가 스스로 지금까지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소설<sup>3)</sup>이다. ‘청춘 서사’를 뛰어넘는 소설이자, 인간의 위치 특히 작금의 중국을 살아가는 청춘 세대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추궁하는 소설이다.<sup>4)</sup>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公路小說’의 실험작<sup>5)</sup>으로도 평가받는다. 《1988》은 초판 인쇄 부수만 70만 권에 달하고, 2013년에는 소

2) <<時代周刊>全球最具影響力百人榜 韓寒總排名第24>, 《網易娛樂》, 2010.04.30.(<http://ent.163.com/10/0430/05/65GC3G7R00032DGD.html>)

3) 鄭潤良, <<1988>: 韓寒與當代社會的戲劇性>, 《語文教學與研究》 2010年 34期, 2010, 78쪽.

4) 田忠輝, <姿態: 邊走邊說——讀韓寒<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小說評論》 2012年 1期, 2012), 130쪽.

5) “국내 최초로 ‘公路小說’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소설”(閔昊, <探析韓寒的公路小說的特點>, 《青年文學家》, 2016年 24期, 2016, 20쪽), “韓寒은 중국 새로운 세기 문학 작품에 ‘公路小說’ 제재를 시도한 최초의 작가”(孔德閣, <韓寒作品的個性敘事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論文, 2012, 35쪽)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설을 각색한 동명 연극으로 인기를 끌었다.

2011년 1월, “韓寒의 신작은 블랙유머적인 사고력과 재능을 충분히 드러냈고”, “흔히 있는 일과 평범한 사람들을 묘사했지만, 사회 표층 밑 가장 은밀한 눈물과 웃음을 잘 다듬었으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사람들을 신복하게 만드는 가치를 찾으려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 <亞洲周刊> 10대 소설’로 선정되었다.<sup>6)</sup> 이는 작품이 지닌 높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단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번역본이 출판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저명 중문학자인 미국의 골드블랫(Howard Goldblatt), 일본의 후지 쇼조(藤井省三) 등에 의해 번역본과 부분 번역으로 소개된 바 있다.<sup>7)</sup>

이렇듯 대내외적인 높은 평가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1988>에 관한 중국 내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韓寒’만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국에서 약 3천 편(2017년 4월 15일, CNKI 기준)의 소논문 및 석사 학위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 작품명 ‘1988: 我想和这个世界谈谈’으로 검색한 결과, 45편의 소논문만 검색되었으며, 이중 동명 연극 관련 자료를 제외한 학술적 성격의 소논문은 불과 10여 편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포스트 80세대’ 작가군의 형성과 정립의 범주에서 작가 韓寒을 연구하고, 그를 둘러싼 각종 논쟁 관련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988> 발표 이전에 출판된 소설들에 관한 연구 역시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1988>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 성과물들이 일부 존재하지만<sup>8)</sup>, 이미 알려진 “公路小說”이라는 정해진 틀을 중심으로, ‘블랙유머’, ‘반항 정신’, ‘현실 비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독해

6) <2010년 <亞洲周刊> 十大小說 韓寒<1988>榜上有名>, <人民網>, 2011.01.19. 참조. (<http://culture.people.com.cn/GB/40473/40474/13764622.html>)

7) ① <1988: 나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김미숙 옮김, 생각의 나무, 2011. ② 1988: I Want to Talk with the World, Trans. Howard Goldblatt, AmazonCrossing, 2014. ③ 藤井省三 譯·解説, <1988~僕はこの世界と話したい(抄)>, <すばる> 2015년 7월號, 集英社, 2015.7.

8)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물은 본고의 <參考文獻>의 서지를 참조할 것.

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체계적 연구는 살피기 어렵다. 국내에도 총 네 권의 작품집이 번역·출간되어<sup>9)</sup> 작품 소개는 활발한 편이나, ‘포스트 80세대’ 작가군의 성립과 작가 韓寒을 둘러싼 논쟁, 소설 《三重門》 연구에 집중돼 있고, 《1988》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1편에 불과하다.<sup>10)</sup>

이는 韓寒의 기존 소설에 뚜렷이 드러나는 비교적 명확한 플롯, 거침없는 반항적 인물 형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언어 풍격과는 사뭇 다른 소설적 특징 때문으로 판단된다. 명확한 사건이나 플롯 없이, ‘길’의 여정에 나선 주인공 ‘나’(=陸子野)와 매춘부 ‘나나’(娜娜)와의 우연한 동행, 그들 사이의 대화와 끊임없이 삽입되는 과거 회상을 통한 스토리 전개 방식, ‘길’의 도정을 통해 환기되는 ‘나’의 내면세계에 대한 천착, ‘나’라는 필터를 거쳐 드러나는 냉혹한 현실 비판과 삶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 등이 韓寒의 기존 글쓰기에서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88》이 지난 10년간의 창작 생애를 통한 작가적 성숙을 표지하는 소설로, 전작들과는 다른 ‘청춘’ 서사, 다시 말해 동세대 청년들의 피상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보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인공 ‘나’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의 정신세계와 자아 찾기에 대한 천착을 드러냄으로써 작가적 깊이를 드러내는 전환작이라는 관점 하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88》의 출판과 맞물린 2010년 전후의 韓寒의 다양한 사회적·문학적 실천 및 당시 유행하던 ‘청춘 회고열’의 맥락과 연결 지어 창작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세밀한 독해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 ‘길’의 함의와 서사 구조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작가 韓寒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9) 韓寒의 잠문집 《青春》을 번역한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최재용 옮김, 문학동네, 2014.5), 소설집 《삼중문》(박명애 옮김, 랜덤하우스, 2008)과 《연꽃도시》(박명애 옮김, 랜덤하우스, 2009), 《1988》(김미숙 옮김, 생각의 나무, 2011) 등을 들 수 있다.

10) 《1988》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박명애의 <온고지신을 타파하는 질주하는 청춘-한한의 소설 「1988 :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다」>(《작가세계》 24집, 2012.3)가 유일하다. 이 평론에서 필자는 주로 작가론의 관점에서 작품이 갖는 세대 소설적 특징과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철학 등을 논하고 있다.

## 2. 작가의식의 성숙: 《1988》의 창작 배경

이 소설은 2009년~2010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나는 2009년 여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사다난했던 여름에 결국 정체되었다. 2010년 초의 겨울에 다시 시작했으나 또 정체되었다. 2010년 여름에 이르러서야, 똑같이 다사다난하긴 했지만 1988을 완성하였다. 1988은 주인공이 댄던 스테이션왜건의 이름이다. 원래 이 책을 《1988》이라 불렀고, 서문은 '나는 이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다'였다…… (……) 나는 여태껏 이러한 방식과 문장으로 소설을 쓴 적이 없었는데, 마치 이전의 모든 준비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지난날 난 스스로가 준비를 결코 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나는 준비를 다 했으니 우리가 길을 가게 하자. 이 책으로 길에서 넘어지는 나의 모든 친구들을 기념하고, 이 책을 당신, 내 생명 속의 여학생들에게 바친다.<sup>11)</sup>

서문에서 알 수 있듯, 《1988》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문장으로 창작을 시도한 일종의 전환적 성격을 갖는 소설로, 2009년 여름부터 2010년 여름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을 할애해 단속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주인공이 댄던 '스테이션왜건'과 '길에서 넘어지는 나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내 생명 속의 여학생들'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작품이 주인공의 '자동차를 몰고 떠나는 길 위의 여정'을 통해 '친구'와 '여학생들'로 상징되는 과거를 기억하는 내용의 소설을 기획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서문의 제목과 '길에서 넘어지는 나의

11) 这部小说完成在2009年至2010年之间, 我从2009年的夏天就开始落笔, 多事之夏, 最终停滞。到2010年初的冬天继续开始, 再停滞。一直到2010年的夏天, 一样多事之夏, 但完成了1988。1988是里面主人公那台旅行车的名字。本来这本书就叫《1988》, 序言是——我想和这个世界谈谈…… (……) 我從來沒有用這種方式和文字寫過小說, 仿佛之前的一切準備都是為了迎接她。在過往, 我覺得自己並沒有做好準備, 我是否能這樣去敘述。但是在這個凌晨, 我準備好了, 讓我們上路吧。以此书纪念我每一个倒在路上的朋友, 更以此书献给你, 我生命里的女孩们 (韓寒, 《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序》, 國際文化出版公司, 2010.9)。이하 《1988》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서술의 편의를 위해 쪽수만 표기하려 한다.

모든 친구들'이라는 구절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중국 당대의 각종 현실 세상의 장벽과 그 길 위에서 좌절하고 쓰러진 동세대 '청춘'들을 이야기하고, 소통 불능의 세계와 마주해 대화하고자 하는 소통의 욕구를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韓寒이 동세대 청년들의 모습이 투영된 주인공을 설정하고, '길'의 여정을 통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련되었으나 의미를 잃지 않는 서술과 과거보다 함축적인 어조를 통해, 韓寒의 사상적 성숙과 소설 글쓰기 기교의 성숙을 드러냈다"<sup>12)</sup>, "이전의 캠퍼스 글쓰기와 소년 창작에서 정신 신앙적 글쓰기로의 전환"<sup>13)</sup>을 보여준 작품으로, "과거와는 달리 성숙한 주제를 다루는데,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소설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sup>14)</sup>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기존 소설에 관해 韓寒이 직접 관련 정보를 기술한 문장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언급은 매우 드물다. 서문을 제외하면 이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직접적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이전의 모든 준비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는 韓寒의 언급에 실마리가 제시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1988》에 뚜렷이 노정되는 작품의 변화 및 작가적 성숙을 살피기 위해, 통시적으로 10년에 이르는 변화 양상과 작품 출판을 즈음한 시기의 그의 문학적·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던 '청춘 회고' 열풍과 연결 지어 분석하려 한다.

韓寒은 습작기인 1997년부터 문장을 발표하였고, 2000년 《三重門》 출판으로 본격 데뷔한 이후, 《1988》이 출판된 2010년까지 총 6권에 달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2010년, 서른에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면서, '청춘 문학'으로 지칭되는 지난 10여 년 간의 창작에 대한 작가적 고민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12) 石一楓, <幹預生活的勇氣與能力>(《當代》(長篇小說選刊) 2010年 06期, 2010), 218쪽.

13) 劉波, <讓“在路上”的夢想照進現實——評《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兼論韓寒>, 《新作文》, 2010年 12期, 2010, 10쪽.

14) 박명애, <온고지신을 타파하는 질주하는 청춘-한한의 소설 『1988 : 나는 세상과 이야기 하고 싶다』>(《작가세계》 24집, 2012.3), 352-353쪽.

것이다.

이는 그와 ‘포스트 80세대’ 작가군의 성장 궤적과도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 ‘포스트 80세대’ 문학의 최초작으로 분류되는 《三重門》을 통해, 그는 당시 유행하던 ‘학원소설’의 한계를 뛰어넘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비판한 본격적인 ‘청소년 문학’을 발표하며, 유머러스하고 가벼운 문체를 통해 ‘청소년 세대의 대변자’가 된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정면 돌파하며, 기존 문단의 권위와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통해, 달라진 세대의 문학관을 강조한다.

소설 창작의 측면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소재를 확장시키고, ‘반항과 이탈’, ‘유랑’을 일삼는 인물을 다룬 다양한 형식——예를 들면, 마술적 리얼리즘을 표방한 《光榮日》, 무협 소설 《長安亂》 등——의 소설들을 실험하며, 작가 특유의 예리하고 비판적인 현실 풍자와 유머러스한 필치를 드러낸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문화 산업화된 ‘청춘 문학’의 대표로, “근질긴 비판정신으로 포스트 80세대 중 가장 공공 의식을 갖춘 영향력이 큰 작가”<sup>15)</sup>로 평가받는다.

10여년에 이르는 창작 생애를 거쳐, 韓寒은 점차 성숙한 작가의 면모를 보인다. 이는 20대 후반에 접어들며 다양한 건문의 확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유의 성숙, 시대적 병폐에 대한 直視와 문제 제기, 작가로서의 자기 고민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가적 성숙과 맞물려, 소설이 출판된 2010년을 전후해 韓寒의 다양한 사회적·문학적 실천이 나온다.

첫째, 韓寒의 블로그 문장을 엮은 잡문집 《青春》이 타이완(新經典圖文傳播有限公司, 2010.9)에서 출판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및 청년 세대의 초상을 담고 있다. 사회에서 획정된 목표에 따라 타인과의 무한경쟁을 벌이고, 이에 따른 적자생존을 위한 초조감, 사회 진입 이후 경험하는 갖가지 사회적 부조리와 시폐에 따른 좌절과 절망감 등 동세대 청년들의 ‘청춘’과 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돋보인다. 이는 《1988》의 주제

15) 鄭潤良, <韓寒與當代社會的戲劇性> (<博覽群書> 2011年 1期, 2011), 23쪽.



의식, 인물 묘사와도 긴밀히 호응되며 연관 관계를 갖는다.

잡문집 《青春》의 출판은 2005년 개설한 블로그<sup>16)</sup>를 통한 사회 참여적 잡문 창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논쟁 관련 문학관을 펼치다가, 점차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적인 언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년 공공지식인으로 성장<sup>17)</sup>한다. 세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시야 확대, 시대 흐름에 대한 기민한 포착과 대처, 문제의 핵심에 단도직입적으로 다가가는 잡문의 창작은 필연적으로 작가적 성숙과 연결된다. 또한 블로그의 공개에서 알 수 있듯, 문학과 관련된 일체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전통적인 작가협회와 출판 산업의 활동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며<sup>18)</sup>, 문단의 관행 및 전통적인 홍보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작품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비춘다.

둘째, 1년 3개월 남짓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6일 “독립된 인격이 없으면 독립된 문격(文格)도 없다(没有独立的人格就没有独立文格)”를 기치로 내걸며, 韓寒이 직접 主編을 담당한 잡지 《獨唱團》을 정식 창간한다. 창간호가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지만, 이후 國家新聞出版總署의 비준 문제, 出版商의 회피 등 갖가지 요인으로 인해 당해 12월 무기한 정간된다.

이 잡지 창간호에 《1988》의 앞부분 1만자 분량이 연재 형식으로 최초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독립된 문격(文格)’에 대한 고민과 포스트 80세대로서 새로운 풍격을 지닌 독립 잡지 출간 시도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소설과

16) 韓寒의 블로그(<http://blog.sina.com.cn/twocold>)는 2017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총 방문 횟수가 이미 6억여 건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와 거대한 규모의 팬덤을 자랑한다.

17) 韓寒의 블로그를 통한 청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성장 및 이를 뒷받침한 매체의 역할, 그리고 ‘비판 문화의 상품화’ 측면에서 갖는 한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상범, <당대 중국 문화의 상품화와 ‘80허우’> (《중국근현대사연구》 6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14.6), 239-242쪽을 참조할 것.

18) 박자영, 앞의 논문, 287쪽; 블로그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심포지엄에 참가하지 않는다./ 저자 사인회를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서문을 써주지 않는다./ 강좌를 하지 않는다./ 테이프 커팅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TV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는다./ 어떠한 청탁 원고와 칼럼도 쓰지 않는다./ 어떠한 기사 형식 광고도 쓰지 않는다. (……) (不参加各种研讨会/ 不举办签售/ 不给活着的人写序/ 不为他人写剧本/ 不参加剪彩/ 不参加颁奖典礼/ 不出演电视剧/ 不写任何的约稿和专栏/ 不写任何软文/ (……)) (<http://blog.sina.com.cn/twocold>) (검색일: 2017.04.15.)



자신만의 풍격을 지닌 서사 구조 등의 측면에 대한 작가적 고민과 연결된다.

셋째, 韓寒이 직접 각색과 감독을 담당한 로드무비 <後會無期>(2014.7 개봉)와의 관련성이다. 관련 인터뷰 자료에서, 대략 5년 전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각 도시를 왕복하고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고 갖가지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다소 민감한 것 같아 성공하지 못했고, 이 이야기를 소설로 출판한 것이 바로 <1988>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차를 운전해 길을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sup>19)</sup>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당초 로드무비의 기획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소재와 화제를 수집했고, 로드무비의 전형적 특징과 서사 구조 등에 관한 사전 학습 과정이 수반됐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길’과 등장인물의 상관성, 여정을 통한 자기성찰과 자아탐색의 역정 등의 주제의식을 확정 지었고, ‘길’의 서사를 다룬 <1988>의 창작이 가능하였다. 당초 시나리오 집필을 염두에 두었기에,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한 스토리 전개 및 내면의식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간결한 문체의 언어적 특징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 2000년 후반 들어 포스트 8090 세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청춘 회고’ 열풍과 연결 지어 분석할 수 있다. 전 세대와 비교하면, 이들은 확실히 개혁개방 이후 출생하며 물질적 풍요와 가정의 보호 속에 성장한 세대이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집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대이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기에서 본격적으로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시장 경제 하의 물질적 ‘성공’으로 상징되는 삶을 쟁취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압박감과 실패와 도태에 대한 두려움, 상대적 박탈감, 좌절 등 갖가지 정신적 중압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대안적 상황에 대한 갈망이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대중문화 영역에 반영되었고, 정서적 반응이 좌절과 우울, 자기 연민의 색채가 진한 ‘청춘 회고’ 열풍을 이루며 일상사에 관한 추억을 다룬 대중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sup>20)</sup>

19) 史志文, <韓寒: 旅行者>(<东方电影> 2014年 08期, 2014). 30, 33쪽.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보여주는 韓寒은 이러한 ‘청춘 회고’ 열풍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한 자신의 회답을 《1988》을 통해 표현하려 하였다. 단순한 자기 연민적 정서의 토로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재의 갈마듭을 통해, ‘청춘’ 세대의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에 대한 회상과 현재를 살아가는 길의 여정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탐색의 여정을 서술한 것이다.

### 3. 《1988》에 드러난 ‘길’의 서사와 작가의식

#### 3.1.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길’의 함의

《1988》은 30세 ‘나’(=陸子野)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친구를 맞기 위해 자동차 ‘1988’을 운전하며 ‘북방’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결말에서 2년 뒤 다시 국도에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맺는 구조를 갖는다. 중심 플롯은 ‘나’와 우연히 성매매를 한 매춘부 나나(娜娜)와의 짧은 5일 간의 318 국도에서의 여정이다. 하지만 주인공 ‘나’의 ‘현실의 여정’만을 서술하지 않고, 회상 장면과 함께 현재에서 과거로 뛰어넘고, 과거에서 그 이전 과거의 회상으로 건너가는 회상과 반추를 통한 ‘성장 역정’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여정을 매개체로 삼아 인생관과 현실관을 반응하는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을 ‘公路小說’의 범주로 분류한다.<sup>21)</sup> 관점에 따라 “밑바닥 사람들의 민간에서의 유랑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의 갖가지 병폐와 문제를 반영하고, 하층 인물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서구의 피카레스크 소설(Picaresque novel)의 계승<sup>22)</sup>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20) 고윤실,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 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72號,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5.3), 138-142쪽 참조.

21) 龐潔, <我能和這個世界談些什麼>, 《美文》(下半月), 2010年 12期, 2014.

22) 鄭潤良, <韓寒與當代社會的戲劇性>, 《博覽群書》 2011年 1期, 2011, 24쪽.

하지만 이 소설은 로드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형적 ‘公路小說’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길’ 위에서의 견문과 사건을 통한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전자에서 강조되는 질주하는 자유, 추적과 모험 등 역동적이고 스펙타클한 측면보다는, 작중 주인공 ‘나’의 자각적인 여정을 통한 내면의 성장과 외적 세계에 대한 비판 의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 ‘나’와 ‘나나’ 사이의 대화를 통한 차가운 사회 현실의 비판, 끊임없이 갈마 드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기억의 반추를 통한 ‘나’의 내면세계의 변화 양상이 서술의 초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公路小說’보다는 넓은 범주와 다양한 함의를 지닌 ‘길’의 서사의 틀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여정이 지체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이곳에서 출발해, 318번 국도를 타고 그곳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 이번 여정이 천박한 드라이브 여행이라고만 여기지 마라. 내가 뿌리 없이 떠돌아다닌다 여기지 마라. 나의 뿌리는 이 땅 위에 깊이깊이 박혀 있다. (……) 내가 장소를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진흙 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 유사(流沙)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발 아래에 있는 유사는 나를 휘감고 사방으로 떠돌았다. 유사는 나를 집어삼키지는 않았지만, 시시때때로 환기시켰다. ‘네겐 다른 선택이란 없었어. 그러지 않았으면 넌 바람에 날려갔을 거야.’ 나는 뜨거운 피 끓는 세월 모두를 이렇듯 무지몽매하게 보냈고, 유사에 휘감겨 동쪽으로 서쪽으로 떠돌았으니, 내가 일찍이 무시한 흩날림도 못했다.<sup>23)</sup>

그래서 나는 결연히 더 높은 곳을 향해 몸부림쳤다. 사실은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내가 유사를 떠나 발아래를 보니, 빌어먹을, 알고 보니 난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었다. 이놈들이 나를 20여 년을 속인 것이다. 발이 있는 동물로서, 나는 마침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유사를 한

23) 只是不要耽誤了我的行程。我要從這裏出發，沿著318號國道，開到那裏的盡頭。不要以為這只是一場膚淺的自駕遊，不要以為我是無根的漂泊，我的根深深地扎在這片土地上，(……)至於我為什麼一直在換地方，因為我以為我扎在泥土裏，但其實我扎在了流沙中。这么多年来，一直是我脚下的流沙裹着我四处漂泊，它也不淹没我，它只是时不时提醒我，你没有别的选择，否则你就会被风吹走了。我就这么浑浑噩噩地度过了我所有热血的岁月，被裹到东，被裹到西，连我曾经所鄙视的种子都不如。(23-24쪽)

번 바라보았다. 유사가 말했다. ‘가거라. 다른 식물들에겐 그들이 사실 동물이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나는 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 나는 그곳에 가서 내 형제들을 지원해야 한다.<sup>24)</sup>

곧 출소할 친구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며 ‘나’의 자각적인 목적의식이 드러난 단락들이다. 밑바닥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유랑’이라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함의와는 전혀 다른 ‘나’의 ‘떠남’에의 의지가 강조돼 있다. 문장에서는 대지-식물/동물, 정주/유랑의 이분법, ‘반항’, ‘유동성’과 ‘자유’의 갈망에 대한 사유와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과거에 자신을 대지 위에 뿌리박고 있는 ‘식물’로 간주하고 있는 대목에서,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주’와 ‘안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뿌리가 사회라는 대지 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유사’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자기중심을 세울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뜨거운 피 끓는 세월”로 상기되는 ‘나’의 청춘을 아무 자각 없이, 사회 현실이 획정한 틀에 부화뇌동하며 비자각적으로 살아갔다는 각성에 이른다.

‘유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는 사실상 ‘불모’와 ‘허위’의, 꿈을 퇴락시키는 공간이자, 삶의 지표와 자아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과 반항을 통해 ‘나’는 결국 자유 의지를 갖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동물”)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식물’이라는 ‘허상’을 통해, ‘동물’적 속성을 갖는 이들을 ‘식물’로 살아가도록 끊임 없이 은폐하고 기만한다. 현실이 강요하는 질서 속에서 안주하기보다 “나의 목적지”로 환기되는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시작됨을, 그리고 “내 형제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종의 목적의식의 수립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자각적으로 자신

24) 於是我毅然往上一掙紮，其實也沒有費力。我離開了流沙，往腳底下一看，操，原來我不是一個植物，我是一只動物，這幫孫子騙了我二十多年。作為一個有腳的動物，我終於可以決定我的去向。我回頭看了流沙一眼，流沙說，你走吧，別告訴別的植物其實他們是動物。/ 我要去向我的目的地。我要去那裏支援我的兄弟們。(25쪽)

을 ‘길’ 위에 내던짐으로써 존재를 다시금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나’의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오랜 주저함과 현실 회피에서 벗어난 준비된 여정이자, 진정한 여정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sup>25)</sup>

이를 통해, 작가 韓寒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나’의 자각적인 길가기 행위를 통한 인간 삶의 여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의 길의 문제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지평과도 연관된다. 소설에서 왜 떠나는가, 어떻게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영혼의 초상은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되는가 등을 검토하면 이를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sup>26)</sup>

길은 서사적 전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길은 늘 변화하는 공간이자, 미지의 세계로 뻗어 있다. 이는 자아가 가야할 가능성과 당위의 공간이다. 나아가 인물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은유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길 위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외적으로는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인식이 이루어지고, 내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의 탐색, 내면의 풍경의 발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굳이 루쉰의 산문시 <過客>의 ‘나그네’ 형상이나 서양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길가기로 이어지는 여정은 곧 인간 삶의 행로이자, 이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의 주제와 모티프, 내용과 형식의 오프제가 된다. 따라서, “길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대상이면서, 곧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대상이다.”<sup>27)</sup>

25) 그리고 나는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꼬박 4년이나 준비했다. 차가 고장 나진 않을까, 스스로 준비가 다 돼지 않았는지, 5,476 킬로미터의 길이라든지 매번 늘 회피했다. (……) 이번 여행이 아마 진정한 여정이 될 것이다。(而我想要開完這一條公路卻准備了足足四年，每一次總有推脫，要不是怕車壞，就是怕自己沒准備好，也就是5476公裏的路。(……) 這次應該是真正的旅程。)(49쪽)

26) 우찬제, <韓國 小說의 前近代와 近代: ‘길’의 主題論을 中心으로> (《한중 인문학 연구》 제4집, 한중인문학회, 2000.1), 114-115쪽 참조.

27) 우찬제, 앞의 글, 137쪽.

### 3.2 ‘현실의 여정’: 부조리한 사회 현실 비판

앞서 이야기했듯, 《1988》의 중심 플롯은 ‘나’와 우연히 성매매를 한 매춘부 ‘나나’(娜娜)와의 짧은 5일 간의 318 국도에서 펼쳐지는 ‘도시’ 여정이다. ‘나’와 ‘나나’가 동행하는 여정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함이 양자의 대화와 회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판·풍자되는 동시에, 양자 사이의 감정적 교류와 소통이 그려진다.

본 절에서는 30세 성인이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주인공 ‘나’와 ‘나나’와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가 처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친구가 출소할 감옥을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목적성을 지닌 여정을 떠난 ‘나’에게 있어, 당초 낯선 도시는 통과지점일 뿐이며, 일회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 길에서 만난 ‘나나’ 역시 이러한 일회적 관계를 표상하는 매춘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춘부 단속이라는 사건에 우연히 함께 얽혀 함께 길을 떠나는 동행인이 되며 이러한 일회적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종래는 서로의 대화를 매개로 한 감정 교류와 소통이 생겨난다.

우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도시적 삶의 현실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매혹적 공간이자 소외의 공간이라는 도시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학자 멩판화(孟繁華)에 의하면, 중국의 20세기 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격변의 시대였다. 전통적 의미의 혁명이 소멸한 자리에 상품이 들어서면서 전근대와 근대와 포스트모던이 착종되고, 혁명과 시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정신적·문화적·사회적 혼란이 도래했다.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었다.<sup>28)</sup> 이러한 착종과 혼란이 혼재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시장 경제와 글로벌리즘의 구조 속에 배금주

28) 멩판화 지음, <웁진이의 말>,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김태만·이종민 옮김, 예담, 2002), 312쪽.

의와 상품화된 대중문화가 만연한 작금의 세속화된 현실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조화(和諧)사회론'이 채택(16기 6중 전회)된 데서 보듯이, 오늘날 중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양극화이다.<sup>29)</sup> 개혁개방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현대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이를 기층에서 뒷받침하고 있지만 정당한 구성원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시골 출신의 삶이 대비되며, 양극화와 그들의 위대한 삶이 그려진다.

'나나'는 바로 이러한 억압과 순종에 길들여진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사회적 약자의 전형<sup>30)</sup>이다. 고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궁벽진 시골 출신으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매춘'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sup>31)</sup> 약자다. 그녀가 거주하는 도시의 공간은 그녀가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도시에서 그녀는 정주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타자의 신분이다. 따라서 그녀가 간고한 도시 생활을 버티기 위해 제아무리 노력하고 버둥거리려도, 그녀에게 되돌아오는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하고 강압적이다.

그녀는 매춘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규범을 어긴 존재로 간주돼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매춘으로 어렵게 모은 2만 위안을 두 번씩이나 경찰에게 벌금으로 뺏기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 방식은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기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이 작품 곳곳에 묘사된다.<sup>32)</sup>

29) 백지운, <근대적 주제의 포스트모던적 해결: 최근 중국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중국현대문학》 4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12), 300쪽.

30) 내가 말했다. "자신을 속이는 재주가 정말 뛰어난네."/ 나나가 말했다. "그건.....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我說, 你真是自欺欺人特別有一套。/ 娜娜說, 那是, 要不然我怎麼保持樂觀。(162쪽)

31)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我是不想幹這個, 但是我是真的什麼都不會。(167-168쪽)

32) 韓寒은 잡문집 《청춘》에서 <선전의 경찰>, <성매매 합법화> 등의 글을 통해 힘없는 매춘부들만 단속하며 전시 효과만 노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백' 있는 업주들은 단속조



성매매를 하다 손님이 몰래 콘돔을 버려 성병에 걸린 '나나'가 치료비로 비싼 비용을 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그 손님이었고, 적외선 치료기 전구도 일반 전구에 불과했다는 점은 후안무치한 의사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수가 꿈인 그녀의 가수 데뷔를 약속하며 성을 매수한 왕페이 음반제작자를 빙자한 사기꾼의 모습 역시 분노를 자아낸다.

성매매 단속(黃掃)을 핑계로, 도시 정비 공무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펜으로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한 '나나'가 오히려 경찰에게 협박 혐의로 며칠간 조사받고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차가운 세상, 약자를 기만하고 보호는커녕 징벌만 가하는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여태껏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그저 진정한 세상에 이르기 위해 존재하는 분장실일 뿐이에요”<sup>33)</sup>라는 말에서 멀리받는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번번이 부조리한 현실의 희생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뱃속의 아이와의 '미래'를 꿈꾸고, 진지하게 인생계획을 세운다.<sup>34)</sup> 하지만 매춘으로 전염된 병으로 인해 죽고 마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가 되어 유일하게 정신적 교감과 소통이 가능했던 '나'에게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인 아이를 보낸다.

'나나'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산산(珊珊), 텨팡(田芳), 황샤오나(黃曉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주류에 의해 홀시 받고 심지어 삭제될 수도 있는 부류의 사람”<sup>35)</sup>으로, 혹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앞에 완전히 노출된 대다수 민중”으로 “모욕당하거나 피해를

차 하지 않는 경찰들의 매춘 단속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33) 我从来不觉得我应该属于这个世界，这个世界是我们去到真正的世界之前的一个化妆间而已。(121쪽)

34) ① 나나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娜娜認真地規劃著人生(57쪽) ② 나나가 말했다. “난 무슨 잃어버릴 거라곤 없어요. 내 뱃속의 아이에게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아이가 나의 전부거든요.” 娜娜說，我沒有什麼可失去的。我就在意肚子裏的孩子。這是我全部的東西。(162쪽)

35) 田忠輝, 앞의 글, 130쪽.

봐도 순응할 뿐 반항하지 않는”<sup>36)</sup> 침묵하는 존재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직 기자였던 ‘나의 경력을 감안하면, 대학 졸업 이상의 엘리트였고, 세속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자로 도시의 몇몇한 구성원으로 안락하고 정주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박차고 나와 자각적인 자아탐색의 길을 선택한다.

‘내’가 기자가 된 뒤 경험한 언론사 생활 역시 현실의 부조리에 일조하는 조직으로 묘사된다. ‘나는 기자로서 사회 문제들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꿈과 사명감을 갖는다. 문화부 기자를 하면서 관계적인 뇌물을 거절하고 염증을 느낀다. 사회부 기자만이 사회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꿈을 지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회부에는 훨씬 거액의 뇌물이 넘나들고, “정의와 사악함을 정의할 수 있는” 큰 힘을 지닌 이들이 존재하며<sup>37)</sup>, 기사를 쓸 때는 이러한 배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진지하게 뉴스에 접근하는 진짜 기자들은 모두 배제돼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지녀야 할 본연의 신성한 의무와 역할은 망각한 채 특종이나 이슈 여부, 예컨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 수 있는 폭로성 기사가 될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신문사의 메커니즘<sup>38)</sup>은 환멸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그가 기자로서 접한 부도덕한 기업가, 성공을 위해 무명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루고, 거짓광고와 스캔들까지 일삼는 영화 제작자 등의 모습에서 냉혹한 사회 현실을 느끼고, 잠입 취재를 핑계로 사우나에서 성매매 서비스를 받고 폭로 기사를 썼던 과거에 대한 일종의 참회의식을 느끼기까지 한다.<sup>39)</sup>

36) 박명애, 앞의 글, 363-364쪽.

37) “(……) 나는 이상이 있는 놈이야.”/ 친구가 말했다. “당시엔 너 알지 못했던 거야. 너를 통제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아야.”/ 나는 말했다. “사악함이 정의를 압도할 수 없다고 난 굳게 믿게 있어.”/ 그는 입을 작게 오므리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그들은 정의와 사악함을 정의할 수 있어.” 我是有理想的。/ 我朋友說, 當時你不知道, 那些控制你的人, 他們的能量有多麼大。/ 我說, 我堅信邪惡不能壓倒正義。/ 他抿了一小口, 說, 但是他們可以定義正義和邪惡。(130쪽)

38) 편집장이 말했다. “이 기사, 아주 좋은데? 또 폭로성이군. 하긴…… 사고를 처야 관심을 끌지. 요즘 애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아주 좋아!” 主編說, 這個選題很好, 又有揭露, 又不得罪不該得罪的人, 又有關懷, 對現在的孩子又有教育意義。很好。(153쪽)

39)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이 폭로 기사는 ‘사우나’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삶 그것은 바로 심연이다.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미련도, 현재에 대한 실망도 대표하지 않으며, 내가 갈수록 자폐적으로 변해감을 드러낼 뿐이다. (……) 다행히도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벽과 같고 우리는 한 마리 고양이와 같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벽에 반드시 내 발톱 자국을 남겨야 하며, 그 전에는 발톱을 스스로를 향해 내밀지 않을 것이다.<sup>40)</sup>

그럼에도 ‘나’는 부조리한 현실과 절망적인 삶에 결코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 문장을 통해, ‘삶=심연, 세계=벽’으로 ‘나’에게 각인돼 있으며, 세계는 곧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갈수록 자폐적·폐쇄적으로 방어 기제를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부조리한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피투/기투적 인간’이라는 실존주의적 테제를 생각하면, ‘자살’ 행위는 인간의 실존을 송두리째 방기하는 행위이자, ‘벽’으로 상징되는 세계의 냉혹함에 압살됨을 의미한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벽’으로 상징되는 세계의 소통불능과 격절의 메커니즘을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소통을 위해 적어도 “발톱 자국을 남기는” 반항적 행위와 정신 자세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sup>41)</sup>이다. 이를 통해 작가 韓寒은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삶을 견디고 주동적으로 살아가는 굳은 의지와 자세를 환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8》에서 韓寒은 그의 잡문에서 그랬듯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주제를 표현하려 했고, 이 세계의 갖가지 이상한 現狀을 카드놀이 하듯 침착하게 차근차근 드러내며 갖가지 연극적 효과로 변환하고 있다. 폭력적인 법 집행, 매매춘, 엄중 단속, 거짓 광고, 부정한 수단에 의한 돈벌이, 저속한 문예, 신문 검열, 연예계의 관행, 도시 관리의 함정단속…… 그리고 이러한 침착함은

娜娜를 다시 시파넨으로 상징되는 거리의 매춘부가 되돌아가게 만든다.

40) 生活它就是深淵。我回憶過去，不代表我對過去的迷戀，也不代表我對現在的失望，它是代表我越來越自閉，(……) 好在我不會自殺，因為我堅信，世界就像一堵牆，我們就像一只貓，我必須要在這個牆上留下我的抓痕，在此之前，我才不會把爪子對向自己。(92-93쪽)

41) 다음 서술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말했다. “꺼져! 삶은 한 편의 TV 드라마와 같아서 아주 영성하고 논리도 없어. 하지만 오히려 비루하게 나아가고 지루하지.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어.”(我說，去你的，生活就像一場電視劇，粗制濫造，沒有邏輯，但卻猥瑣前行，冗長，不過不能罷手。)(131쪽)

이러한 잘못이 ‘중국적 논리’하에 있다는 정확함을 표현해냈다.<sup>42)</sup>

### 3.3 ‘성장의 정신 역정’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

앞 절에서 살핀 ‘나’와 ‘나나’의 현실 여정이 작품의 중심 플롯을 이루고 있다면, 개혁개방과 도시로 상징되는 현실의 삶과 대비되는 농촌에서의 ‘나’의 어린 시절 과거에 대한 회상과 반추 역시 끊임없이 현재와 유기적으로 갈마들며, 작품의 또 다른 내재된 플롯을 이룬다. 이러한 과거/기억은 주인공 ‘나’의 정신적 성숙과 긴밀히 연계되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성인 이후의 기억, 예컨대 기자가 된 뒤 연예계 스타를 꿈꾸던 멍멍(孟孟)과의 사랑과 헤어짐, 사회의 부조리에 관한 회고가 등장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량을 차지한다. 반면, 1988년을 전후로 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회고의 중심이 된다. 작품에서 회고되는 어린 시절은 갖가지 추억들이 엮여 있어 비균질적인 성격을 지닌다.

성투사, 소호대, 구슬치기 등 초등학교 시절 유행과 놀이에 대한 그리움, 다양한 친구과의 자질구레한 추억, 학교 국기 게양대에 올라갔다 구조돼 내려오는 길에 한 눈에 반한 류인인(劉茵茵)과의 첫사랑과 헤어짐의 아픔, 자신의 우상이었던 덩덩 형(丁丁哥哥)과 친구 10번(10號)과 류인인(劉茵茵)의 갑작스런 죽음 등 성인으로 성장한 그의 인생 역정의 과거를 차지한 ‘순수하면서도 찬란하고 애뜻한’, 그리고 感傷적인 정서와 회한 등이 엮여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던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잔재가 남아있던 사회적 분위기<sup>43)</sup> 등도 보인다.

42) 賴廣昌, <流浪漢的戲劇>, 《青島報紙》(電子版), 2011.08.10. (<http://epaper.qingdao-news.com/html/qdzb/20110810/qdzb294116.html>)

43) 어문 교과서에 실린 류후란(劉胡蘭: 1947년 국민당에 붙잡혀 공산당원이 숨어 있는 곳을 대라는 협박에 맞서며 살해된 헌신적 열성 공산단원 소녀), ‘레이펑을 본받은 모범 주민상’(學雷鋒好居民‘獎章), 라디오에 잡힌 타이완 방송을 “적의 방송”으로 규정하고 “비록 개혁개방이 되긴 했지만, 타이완 물건은 여전히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과거 회상을 집을 떠나 낯선 세계를 방황하는 도시 중산층의 영혼의 안식처로 분석하거나, '낭만주의적 동경',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질감에서 출발해, 과거를 동경하고 정신적 고향을 구함으로써 심리적인 평형을 얻으려는 행위로만 분석한다면, 작품의 '성장의 심리 역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명확한 한계가 될 수 있다. 또한 《1988》 출판 당시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던 좌절과 우울, 자기 연민의 색채가 진한 '청춘 회고' 열풍과 관련지어, 작품에 드러난 感傷적인 정서와 회한에만 중점을 둔 연구 방식 역시 편향적 분석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측면들 역시 《1988》에 드러난 과거 회상에 노정돼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본 절에서는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 개념을 염두에 두고, '나'를 끊임없이 세계라는 현상과 대화하는 존재로 규정짓고, 1절에서 분석한 '나'의 '지금-여기'에서의 자아정체성의 탐색과 긴밀히 연결되는,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회상을 통한 '성장의 정신 역정'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경험과 변화, 연결을 통한 자기 성찰과 치유라는 길의 정신적 상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의 제목, 그리고 주인공의 길 위의 여정을 가능케 해주는 매개체인 스테이션왜건의 출시년도와 이름이 '1988'인 점, 작품의 부제가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다"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1988'년을 전후한 시기로 짐작되는 자기 세대의 어린 시절을 부단히 현실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삽입시키며, 추억 속의 인물과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정서와 사유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한다.

사실상 이러한 회상 역시 일종의 정신적 여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상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나아감이며, 회상의 내용은 '성장'으로, 한 청소년이 끊임없이 사회와 대면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에서, 서로 다

---

소년선봉대원이 돼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 장제스를 연기했다는 이유로 문혁 때 하방된 류인인의 아버지가 딸을 꾸중하던 교장에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당신의 군대는 이미 패배했다'고 야유받는 모습, 눈보건체조 구호에서 '혁명을 위해'라는 말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반혁명분자'로 내몰린 '나'의 모습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른 인물들의 운명의 변화는 ‘나’와 ‘세계’와의 대화를 표현하는데, 성장소설의 토픽으로서 《1988》 텍스트는 개인 성장의 범위를 돌파하고, 시대에 대한 질의가 되었다.<sup>44)</sup>

작품 속 회고에서, ‘나’의 ‘성장의 정신 역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로 덩딩 형과 10번, 그리고 류인인 이 세 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이 세계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서술 주체인 ‘나’의 變體<sup>45)</sup>로 해석될 수도 있다. 편폭의 한계로 인해, 본 절에서는 덩딩 형의 인물 형상이 갖는 의미와 작가 韓寒의 작가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덩딩 형과 10번은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따뜻하지근한 피를 지닌 ‘내’가 탄복하고 흠모하며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을 갖고 “뜨거운 피”로 상징되는 열정과 과감한 행동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sup>46)</sup> 그들은 마치 한 사물의 두 속성처럼, 자아 정체성을 고민하는 ‘나’의 두 가지 각기 다른 방향을 상징한다.

‘나’의 우상이었던 덩딩 형은 성숙함과 먼 곳으로의 여정<sup>47)</sup>의 표상이자, 자아 찾기를 위한 과감하고 열정적인 ‘길의 여정’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앞서 살핀 식물/동물에 관한 ‘나’의 사유와 연결 지으면, 자신의 길을 자각적으로 개척하는 ‘동물’형 인간이다.

44) 田忠輝, 앞의 글, 132쪽.

45) 閔昊, 앞의 글, 20쪽; 田忠輝, 앞의 글, 130쪽.

46) 내 생명 속에서 숭배하는 이들은 모두 저 뜨거운 피를 지닌 사람들임을 발견했다. 내가 차가운 피를 지닌 사람은 아니지만, 내 혈액은 따뜻했다. 나는 늘 저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었다. 내가 뉘를 놓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다.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상황을 끝내고 몸을 곧추세우고 있었다. 그런 뒤에도 나는 행동하지도 못했다. 곧추 세우고 있는 그들은 내 생명 속 가장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들에게 탄복했다. 그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내 몸도 뜨겁게 해주기를 희망했다。(我發現我生命裏所崇拜的都是那些熱血的人們，雖然我不是一個冷血的人，但我的血液是溫的，我總是喜歡看見那些熱血的人們，我希望我成爲他們中的一個。我總是發現，當我在發呆的時候，他們已經在思考了，當我在思考的時候，他們已經行動了，當我行動的時候，他們已經翹了，然後我又不該行動了。翹了的他們就成爲我生命裏至高的仰望。我天生佩服他們，希望他們身上的血能夠溫熱我的身體。)(35-36쪽)

47) 그는 항상 이곳을 대표하고 저곳을 대표했다.他總是代表這裏，代表那裏(32쪽)

딩딩 형은 봄에 모든 짐을 다 꾸리고, 기차표 한 장을 쥔 채 내게 작별을 고했다./ (……) “난 북방으로 갈 거야.”/ “와! 나도 데려가줘.”/ “안 돼! 넌 너무 어려워.”/ (……) “형, 거기 가서 뭐할 거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야.”/ “누구랑 이야기할 건데?”/ 딩딩 형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말했다. “이 세계와!”/ “와~!”<sup>48)</sup>

이렇듯 과감한 여정에 올랐던 딩딩 형은 죽고 싸늘한 시체로 고향에 돌아온다. 하지만 이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자아의 성숙을 위해 떠나는 ‘나’의 길의 도정을 가능케 만든 존재로 뻗속 깊이 각인돼, 시시때때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혼의 가이드로 영원히 살아 숨 쉰다. 그리고 그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넌 점점 더 이 세계의 고아와 같아질 거야”<sup>49)</sup>라는 말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 현실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세계와의 소통이 점차 불가능해짐을 일깨운다. 이를 간직한 채, ‘나’는 그리고 작가 韓寒은 ‘세계와 대화하고 싶다’는 대화의 욕구와 노력을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직업은 기자였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는 방관자일 따름이라고 늘 느낀다. 항상 참여자가 되고 싶었지만 늘 한발 늦었다. 나는 기자로서 현장에 늘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사실 나는 여전히 방관자이며, 단지 비교적 빨리 도착하는 방관자일 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글을 쓰고(기술하고) 기억해낼 수 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이 느낌은 딩딩 형이 고향을 떠나던 그날 이후 특히 분명해졌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위험한 인간 세상에 진입하고 싶었지만, 딩딩 형에 의해 무정하게 거절당했다. 그는 또한 내가 어린아이라며, 너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 이후 나는 즐곤 다른 사람이 지나온 길 위를, 때론 울퉁불퉁하거나(험난하거나) 때론 평평한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sup>50)</sup>

48) 丁丁哥哥在春天收拾好所有的行囊，握著一張火車票向我告別。/ (……) 丁丁哥哥說，我要去北方。/ 我說，哇，帶我一起去吧。/ 丁丁哥哥說，不行，你太小了。/ (……) 我說，丁丁哥哥，你去做什麼啊？/ 丁丁哥哥說，我去和他們談談。/ 我說，你和誰談談啊？/ 丁丁哥哥唇邊露出微笑，急切地說，這個世界。/ 我說，哇噢。(47쪽)

49) 丁丁哥哥說，你懂得越多，你就越像這個世界的孤兒。(69쪽)

50) 我的第一份工作是一個記者。我總覺得在所有的故事裏，我只是一個旁觀者，我總是想做一個參與者，但我總是去晚一步。我想，作為一個記者，總能第一個到達現場。但是成了從業者以



성인이 되어 ‘기자’ 신분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난 뒤의 ‘나’의 단상을 묘사한 단락이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자각적인 ‘길’의 개척과 모색이 가능한 연령과 조건이 허락되었는데도, ‘나’는 자신이 여전히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임을 깨닫는다. 이는 앞서 말한 “뜨거운 피”를 갖춘 열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나’는 “위험한 인간 세상”에 덩딩 형과 함께 진입하고 싶었지만, 단호히 거부당한다. ‘나’의 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기에, 남이 지나간 길을 아무 고민 없이 답습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하겠지만, 자아를 찾으려는 여정에 대한 갈망은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나’를 길 위에 자각적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1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나’의 탐색의 의지는 ‘나’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덩딩 형의 형상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작가 韓寒의 다음 문장은 《1988》에서 이러한 덩딩 형과 ‘1988’년을 주요 인물 형상과 과거 회상의 중심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여행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유랑이 무척 유행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요즈음처럼 생존의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이 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랑을 동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유랑을 해야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비정상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작품이나 노래 가사에서 ‘마음이 유랑하게 하라’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은 여전히 도시에 남아서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 제 주위의 학생 친구들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sup>51)</sup>

後, 我卻想明白了, 我其實還是一個旁觀者, 只是一個到得比較快的旁觀者而已。但是我已經滿足於記敘和記憶下來。這個感覺從丁丁哥哥要離開家鄉的那一天就特別明顯, 因為我想和他一起去這個危險的花花世界裏, 但是被丁丁哥哥無情地拒絕了, 他還說過說, 你是個小孩子, 你看著就行了。從那次以後, 我一直有一種感覺, 我一直走在別人趟出來的道路上, 或崎嶇、或平坦。(128쪽)

51) 한한 지음, <도시가 생활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최재용 옮김, 문학동네, 2014), 428-431쪽.

이 문장을 통해, 韓寒은 개혁개방의 가속화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상실하고, 기껏해야 ‘집’으로 대표되는 현실적·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었음을 비판한다. 이에 반해 1980년대는 꿈과 이상의 시대, 유랑에 대한 동경을 품고 이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자아정체성의 모색이 활발했던 일종의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식된다. 따라서 韓寒이 ‘나의’ ‘정신적 성장 역정’의 출발점으로 1980년대를 상정하고,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를 통한 ‘행동하는 청춘’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존과 이를 가능케 하는 치열한 열정과 모색에 있기 때문이다.

10번 역시 초등학교 시절 형들의 부당한 행위에 행동으로 ‘반항’할 수 있었던 “뜨거운 피”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덩딩 형과 비교하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식물’형 인간, 다시 말해 ‘정주’형 인간을 표징한다. 앞서 ‘유사’로 상징되는 현실에 의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나’와 비교할 때, 확고하게 자기중심을 갖고 ‘고향’에 뿌리박고 있는 존재이기에, 따라서 ‘나’는 그를 “내 몸에서 격발되지 않은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그의 안정감을 끊임없이 부러워한다.<sup>52)</sup> 그리고 또 다른 ‘식물’형 인간이자 ‘나의’ 첫 사랑이었던 류인인과 교통사고로 죽는다. 따라서 10번 역시 자아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나의’ 마음속에서 부단히 ‘정주’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이

52) 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늘 10번이 내 몸에서 격발되지 않은 일부분이라 여겼다. 10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 어쩌면 이 땅이 10번의 모든 안정감을 주는 근원이었는지 모른다.但是很奇怪, 我總覺得10號是我身體裏沒有被激發的一部分。幾乎所有的人都離開了家鄉, 除了10號。也許這片土地是10號所有安全感的來源。(179쪽) ② 물론 나는 믿는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한 사람보다 더 막막하다. 나는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고 있다. 어딘가에 도착할 때마다 30년간 연기하던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성격에서 10번을 찾아낸 후 이것이 나의 고정배역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내가 10번을 얼마나 흠모했든가! 그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렀다.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만 하는 우리 이 나라에서, 이는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번 낯선 환경에 의해 거듭 망가진다.當然我相信, 移動著的人永遠比固定著的人更迷茫, 我總是從一處遷徙到一處, 每到一處都覺得自己可以把飾演了三十年自己拋去, 找到自己性格裏的10號, 然後這就是我固定的戲路。我多麼羨慕10號, 他從出生到死亡, 都在同一個地方。在我們這個必須不停遷徙的國度裏, 這比活著更顯得彌足珍貴, 而我卻被每一個陌生的環境一次次推毀。(187쪽)

다.

마지막으로, 류인인은 인생에서 한번 밖에 없는 첫사랑을 상징한다. '나'에게 있어 아동기와 청년기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의 표상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소년기를 표상하는 단 하나의 기호로 존재하며, '나'의 생명 속에 깊이 간직된 의미 있는 존재이다.<sup>53)</sup>

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고,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이 친구들은, 그리고 2절에서 분석했던 의미 없는 동행인에서 여정의 끝에서는 소통이 가능한 친구로 발전했던 '나나'까지도 모두 죽는다.

홀로 길을 가는 獨行者에서 동행과 함께 하는 여정을 가게 된 '나',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친구들, 다시 말해 끊임없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미 고인이 된 덩덩 형, 류인인, 10번에 이어, '나나' 역시 '나'의 내면에 깊게 각인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에게 삶과 사랑, 상실과 죽음 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세상과 소통하게끔 간여할 것이다.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죽음에 대해서라면, 나는 즐곤 다음과 같이 생각해 왔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세상을 떠난 것뿐이라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세계를 거닐고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명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말이다.”<sup>54)</sup>

따라서, 《1988》의 결말은 예상에서 벗어나 다소 파격적이고 열린 구조로 일단락된다. '나나'와의 5일 간의 짧은 여정과 헤어짐, 그리고 2년 뒤 그녀가 죽은 뒤 '내'게 맡겨진 그녀의 아이와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열린 결말을 보인다. '나'와 나나와의 감정의 교류와 소통. 이것이 결국 결말 부분에서

53) 나의 추억 속에서 소년 시절은 텅 비어 있다. 나의 아동기와 청년기는 모두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단편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보통사람이었을 뿐이다. 각양각색의 슬로건과 구호가 나의 성장을 표기하고 있다. 어떤 것이 유행하면 나는 그것을 따라갔고, 누가 예쁘면 나는 그녀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소년 시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그 세월 속에서, 어쩌면 내 기억 속에 그 소녀, 류인인 한 명만 남아 있는지 모른다.在我的回憶裏, 空缺了少年的時光, 我的兒童, 我的青年, 都在時代前行的片段裏度過, 我只是一個普通人, 各種各樣的標語和口號標記著我的成長, 什麼流行我追隨什麼, 誰漂亮我追隨誰, 可少年時候的我在做什麼? 在那最重要的年歲裏, 也許是我記憶裏的那個姑娘, 劉茵茵, (……)(103쪽)

54) 한한 지음,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생명의 존재 양식>(최재용 옮김, 앞의 책), 116쪽.

나나가 죽으면서 왜 자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냈을까 하는 물음에 힌트를 제공한다. 이 아이는 아직 부조리한 세계와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존재이다. 마치 루쉰이 《狂人日記》에서 아직 ‘식인’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구하라”는 절규에 나온 ‘아이’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은 세계에 속한 아이’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sup>55)</sup>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의 결말이 희망을 내재하고 있으나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는 다음 문장에서 제시하듯, 나를 대신해 먼저 가버린 친구들이 늘 함께 존재할 것이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나는 1988을 세웠다. 녀석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뜻밖에 아이가 울지 않았다. 나는 뒷좌석에서 자루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1988 제조자의 유골이 들어 있다. 내 마음속엔 그 안에는 땡땡 형과 10번, 류인인도 있었고, 나는 그들을 바람 속으로 날려 보냈다. (……) 어쨌든 나도 그들에게 뒤덮여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먼저 갔으며, 너무 빨리 달려 주머니에서 떨어진 카드를 나는 그들 대신 정리하고 있다. 나는 시종일관 그들이 가른 기류 속을 달리지만, 나도 바람의 저항이 약간 잦아들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그들은 나를 대신해 내가 부딪칠지 모르는 높은 벽들과 부딪치고, 내가 떨어질지 모르는 산골짜기에 대신 떨어졌다. 그런 다음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길은 괜찮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봐. 하지만 넌 이미 한번 도와줄 기회를 써 버렸어. 안녕, 친구!”<sup>56)</sup>

55) 나는 은 세계에 속한 아이를 데리고 여정에 올랐다.我帶著一個屬於全世界的孩子上路了。(213쪽)

56) 天全黑的時候，我停下了1988。小家夥正在熟睡，今天她居然沒有哭泣。我從後座拿出了一個袋子，裏面便是1988製造者的骨灰。在我心中，裏面還有丁丁哥哥，10號，劉茵茵，我將他們撒在了風裏。(……) 反正我也是被他們籠罩著的人，他們先行，我替他們收拾著因為跑太快從口袋裏跌落的撲克牌，我始終跑在他們劃破的氣流裏，不過我也不曾覺得風阻會減小一些，只是他們替我撞過了每一堵我可能要撞的高牆，摔落了每一道我可能要落進的溝壑，然後告訴我，這條路沒有錯，繼續前行吧，但是你已经用掉了一次幫助的機會，再見了朋友。(214-215쪽)

## 4. 나가며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 韓寒은 《1988》에서 현실과 과거를 수시로 넘나들며, 부조리한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 의식 및 인간의 삶, 죽음, 상실과 사랑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사고를 드러낸다. 작품의 부제 “나는 세상과 이야기 (소통)하고 싶다”를 통해, 韓寒은 자아를 짓누르는 현실 세계와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이 세계와의 부단히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과 욕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韓寒의 작가적 성숙을 드러냈으며, “필치를 인간의 정신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엔 현실의 모순, 삶과 죽음의 시련, 개인적 신앙이 있고, 사회에 대한 성찰과 선악에 대한 판단이 있으며, 도덕적 경계를 뛰어넘는 인성의 곤혹이 존재한다. 韓寒은 반드시 이와 마주해야 했으며,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왜냐하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는 이미 이 세계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이는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현실의 무게,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삶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묘사되듯, 온갖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계는 그야말로 냉혹한 역설과 부조리의 공간으로 진단된다. 현실 세계가 온전한 이상과 자유의 추구의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일종의 결핍의 공간이라 한다면,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자각적 태도와 ‘꿈(이상)’을 간직한 채, 부단히 과거를 반추하고 현실과 맞대면하는 정신적인 성숙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칠 때, 이러한 결핍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곳,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韓寒이 이야기하듯, “우리 무대 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예전에 이 극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방의 높은 담벼락과 조명들을 천천히 없애버리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57) 劉波, 앞의 글, 9쪽.

때, 그 광명은 아무도 꺼버릴 수 없을 것”<sup>58)</sup>이기에.

< 參考文獻 >

- 韓寒, 《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 國際文化出版公司, 2010.9.  
\_\_\_\_\_, 《1988: 나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김미숙 옮김, 생각의 나무, 2011.  
\_\_\_\_\_, 《韓寒五年文集》, 中國青年出版社, 2005.  
\_\_\_\_\_, 《零下一度》, 萬卷出版公司, 2008.  
\_\_\_\_\_, 《青春》, 台灣: 新經典圖文傳播有限公司, 2010.9.29.  
\_\_\_\_\_,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최재용 옮김, 문학동네, 2014.  
曹文軒, 《二十世紀末中國文學現象研究》, 作家出版社, 2003.
- 賈孟影, <時代的陳述者>, 《八小時以外》 2010年 11期, 2010.  
龐潔, <我能和這個世界談些什麼>, 《美文》(下半月), 2010年 12期, 2010.  
劉波, <讓“在路上”的夢想照進現實——評《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兼論韓寒>, 《新作文》, 2010年 12期, 2010.  
史志文, <韓寒: 旅行者>, 《東方電影》 2014年 08期, 2014.  
徐婉蓉, <淺析韓寒的黑色幽默——以《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爲例>, 《青年文學家》, 2012年15期, 2012.  
石一楓, <幹預生活的勇氣與能力>, 《當代》(長篇小說選刊) 2010年 06期, 2010.  
閔昊, <探析韓寒的公路小說的特點>, 《青年文學家》 2016年 24期, 2016.  
田忠輝, <姿態: 邊走邊說——讀韓寒《1988: 我想和這個世界談談》>, 《小說評論》 2012年 1期, 2012.  
鄭潤良, <《1988》: 韓寒與當代社會的戲劇性>, 《語文教學與研究》 2010年 34期, 2010.  
\_\_\_\_\_, <韓寒與當代社會的戲劇性>, 《博覽群書》 2011年 1期, 2011.  
孔德閣, 《韓寒作品的個性敘事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論文, 2012.

www.kci.go.kr

58) 한한 지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최재용 옮김, 앞의 책), 160쪽.

-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14.
- 김형효, 《가브리엘 마르셀의 具體哲學과 旅程의 形而上學》, 인간사랑, 1990.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우리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이푸투안(Yi-Fu Tuan), 《공간과 장소》, 정영철 옮김, 태림출판사, 1999.
- 고윤실,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 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72號,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5.3.
- 김경수, <존재의 확산을 향한 여정의 소설>, 《작가세계》 7집, 작가세계, 1995.11.
- 박명애, <온고지신을 타파하는 질주하는 청춘-한한의 소설 『1988 :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다』>, 《작가세계》 24집, 2012.3.
- 박자영, <메이드 인 '바링허우'>, 《중국현대문학》 53號,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6.
- 백지운, <근대적 주제의 포스트모던적 해결: 최근 중국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4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12.
- 우찬제, <韓國 小說의 前近代와 近代: '길'의 主題論을 中心으로>, 《한중 인문학 연구》 제4집, 한중인문학회, 2000.1.
- 임상범, <대대 중국 문화의 상품화와 '80허우'>, 《중국근현대사연구》 6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14.6.
- 장경렬, <“숲”과 “사막”으로 난 길을 따라>, 《본질과 현상》 2015년 여름 40호, 2015.6.
- 정현숙, <운대닝 소설의 공간과 토포필리아>, 《강원문화연구》 제 24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12.
- 주진숙, <세상 밖으로: 로드무비의 새로운 지평>, 《영화연구》 10호, 한국영화학회, 1995.12.
- 채윤정, <길을 바라보는 시선들: 로드무비와 길 영화의 문화사회적 비교>, 《가족과 문화》 제3집, 한국가족학회, 1997.
- 최은진, <2012년 '한한(韓寒)-방주자(方舟子) 논쟁(論爭)'을 통해 본 중국 매체(媒體)의 네트워크 작용과 함의>, 《중국연구》 58, 2013.
- 최재용,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사적 의미>, 《중국현대문학》 61號, 2012.6.
- \_\_\_\_\_, <중국의 청소년소설'들': 『삼중문』과 『모텔의 도시』비교 연구>, 《중국현대문학》 74號, 2015.9.



딩티아오(藤條), <한한의 저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플랫폼》 2011년 3·4월 호(통권 26호), 인천문화재단, 2011.3.

拙稿, <韓寒 장편소설 《三重門》 小考: 교육 현실 비판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7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6.6.

<《時代周刊》全球最具影響力百人榜 韓寒總排名第24>, 《網易娛樂》, 2010.04.30.  
(<http://ent.163.com/10/0430/05/65GC3G7R00032DGD.html>)

<韓寒新書將上市 開創“公路小說”新概念>, 《新浪娛樂》 2010.09.15.  
(<http://ent.sina.com.cn/s/m/2010-09-15/14023088308.shtml>)

<每周好書: 公路小說新概念《1988》>, 《和訊科技》 2011.01.13.  
(<http://tech.hexun.com/2011-01-13/126762845.html>)

<2010年《亞洲周刊》十大小說 韓寒《1988》榜上有名>, 《人民網》, 2011.01.19.  
(<http://culture.people.com.cn/GB/40473/40474/13764622.html>)

<2010中國“十大途書”揭曉>, 《中國新聞網》, 2011.05.11.  
(<http://www.chinanews.com/cul/2011/05-11/3033704.shtml>)

賴廣昌, <流浪漢的戲劇>, 《青島報紙》(電子版) 2011.08.10.  
(<http://epaper.qingdaonews.com/html/qdzb/20110810/qdzb294116.html>)

## < Abstract >

### The Study on Han Han's Novel *1988: I want to Talk with the world*

Kim, jong-seok

Han Han is a representative writer of Post-80s writers. From his successful debut—The Triple Door(2000), He caused great argument called to “Hanhan phenomenon”. Throughout his writing career, he struck a rebel's pose, emerged as a public intellectual. The researches from 2000 until now are confined to case analysis of the Post-80s writers, but the articles of the specific analysis on

his novels are very few.

In this article, pay attention on his novel *1988: I want to Talk with the world*, published in 2010, gained immense popularity among the readers with its road movie-like plot and its fragmented construction through the recollection of the past.

In this article, attempt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is road trip novel(=highway novel), which is consisted by one man(=Lu Ziyue) and one woman(=Nana)'s traveling narrative and image. Lu Ziyue's journey on the road seems to represent his journey through life and searching for Self-identification. On the journey, Lu Ziyue is focusing on the present and his past. In one side, He criticize the absurd world. On the other hand, what happened in the past has an impact in how we feel and think today.

In this novel, Han Han delivers a powerful meditation on the forces of life, love, death, and loss. By using The novel's subtitle — "I Want to Talk to the World" —, He suggests both a sense of futility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ongoing dialog of life. As he reminds us throughout, our very existence is one never-ending dialog with the world. This conversation seeks to constantly reshape who we are, what we believe, and what we strive to achieve.

Key Words: Han Han, *1988: I want to Talk with the world*, public intellectual, Post-80s writer, road trip novel, highway novel, Self-identifi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4. 30.	2017. 05. 28.	2017. 05. 30.	2017. 06. 01.	2017. 06. 30.